

---

## 창간사

---

20세기 초에 겪었던 불행한 역사의 연장선에서 한 동안 우리 한국인들의 일본 연구는 다른 외국 연구에 비해 매우 어렵고 특수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일본이라는 외국 자체가 우리에게 특수한 외국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교류와 대립을 반복해온 한국과 일본은 지금까지 서로를 문명의 소유자로 보기보다는 외래 문화의 유입 경로로만 인식해온 것이 사실이다.

근대에 들어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가 됨으로써 한국이 받아들인 인적 물적 피해는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인 더 큰 피해는 일본을 상대로 할 때의 우리의 감정 구조가 영향을 받아온 것이었다. 우리의 자존을 확립하고 우리가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 일본을 더욱 깊게 연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연구가 경시되어 온 것은 그만큼 우월감과 열등감이 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다. 또한 실제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 경제적으로 일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힘에 편승하려는 세력과 한편으로 일본의 실체를 애써 외면하는 경향이 병존하면서 그 감정의 복잡함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일본에 대해 과대 평가하는 것이나 필요 이상으로 비하하는 행위는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며 우리가 가진 두 얼굴인 것이다. 한일 동반자의 시대가 열리면서 그리고 일본의 우익 세력이 군사대국화를 꾀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일본을 좀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철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일본 연구가 시작된지도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쏟아져 나온 많은 연구 성과를 볼 때 오늘날 우리 일본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구를 위한 일본연구인가」가 불분명하다는 점일 것이다. 그것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우선 일본인들이 정립해 놓은 연구 방법론을 그대로 따라서 연구하는 것이 문제이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의 문화, 문학, 언어 등을 연구한다. 우리의 문제 상황과 그들의 문제 상황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구 방법론이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직까지 우리의 필요에 의한 연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일본을 보고 이해하고 연구하려 노력해야 하는 것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또 한 가지는 일본학 관계 연구논문의 언어와 표기의 문제이다. 현재 「한국일본학협회」에서 나온 『日本文化研究』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술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한국인이 한국인들이 보는 학술잡지에 논문을 실으면서 일본어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누구를 위한 논문인가? 또 무엇을 위한 논문인가? 그런가 하면 한국어로 논문을 쓰기는 쓰되 한국어의 표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쓰거나 일본어를 설명 없이 그대로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다. 미국인들은 영어로 일본연구를 한다. 프랑스인은 프랑스로 일본연구를 한다. 그런데 한국인은 일본어로 또는 한국어도 일본어도 아닌 한일 혼합 언어로 일본 연구를 행하는 것이다.

논문에 있어서의 언어와 표기의 일관성은 학문 연구의 기본이다. 일본학의 연구 논문을 좀더 많은 인문학 연구자들이 읽고 영향을 받아 자신들의 연구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우리 일본학 연구자들이 해주어야 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사적 사명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일어일문학과,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비교문학협동과정은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연구자들이 학과 교수님들의 지원 속에서 2000년 12월 고려대학교 대천 수련관에서 「고대일본연구회」의 창립총회 및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그 이후 1년여 동안 문학, 문화, 어학, 일어교육의 각 분과의 월례발표회가 이루어졌다.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학술잡지 『일본 연구』 창간호를 엮었다. 재원은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양 일본어 교재의 인세 수입을 학과 교수님들로부터 지원받아 충당하였음을 밝혀 둔다. 앞으로 『일본 연구』는 일본학을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들의 성실한 연구성과를 담는 그릇이 되고 일본 연구에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의 대화의 광장이 될 것임을 약속한다.

고대일본연구회의 창립과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특히 항상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 김춘미 선생님, 창립 전부터 연구회의 결성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주신 김채수 선생님, 학과장으로서 학과 교수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이한섭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2년 2월  
고대일본연구회 회장단